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짐승의 정체와 속성에 대한 접근

An Approach to the Identity and Attributes of the Beast revealed
in Chapters 13 and 17 of the Revelation of John

장 영
(신약학)

초록(Abstract)

본 소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정체에 관한 시험적 접근이다. 많은 학자들이 계 13:18의 666이란 수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여러 제안들이 제시하는 계산들의 논리적 모순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본 소고는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한 다른 접근을 위해서, 요한 당시의 신화적이거나, 풍문이나, 역사적 자료들에 근거한 여러 가설들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본 소고는 짐승의 상징적 심상들이 어린 양을 패러디하는 표현이라는 데 초점을 둔다.

사실상 요한은 천지창조이야기에서 그리고 후에 시적이며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원하는 여러 이야기들에서 여러 고대 신화들과 구약문헌에 뿌리를 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리위야단 같은 상징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즉 그는 그 짐승과 아웨 사이의 고대전쟁을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된 신약시대의 교회란 문맥에서 삼위일체되신 하나님과 사단의 군대 사이의 전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제국은 어린 양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의 백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다. 본 소고는 그 과정에서 요한이 짐승의 정체와 속성을 패러디적 관점에서 짐승이 어떻게 어린 양을 어설프게 흉내 내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지를 밝히었다.

This essay is a tentative approach to the identity of the beast from the Apocalypse of John. Many scholars argue that the number 666 of Rev. 13:18 could refer to the Emperor Nero. The proposals, however, seem to be precarious because their calculations tend to contain some logical contradiction. For another approach to the identity of the beast, this essay starts from some review of various suppositions based on mythological, hearsay, and historical sources prevailing at the time of John's writing.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a unique symbolic imagery of the beast and its parodies of the Lamb shown in the book.

In fact, we can assume that John must have used the symbolic imagery like Leviathan or the beast fighting against God, stemmed from various ancient myths and Old Testament literature, which often appear in the Creation story and later the miraculous deliverance of God's people from the evil powers expressed in a poetic-symbolic way. Meanwhile, when an era of New Testament has come, ancient wars between the creature and YHWH has turned into battles between Triune God and Satan forces in the context of church starting from the Lamb's death on the cross. The beast and its empire will continuously threaten God's people until its final destruction at the second coming of the Lamb. In the context of parodies of the beast imitating the Lamb, John reveals its identity and attributes in the Revelation.

주제어 짐승, 게마트리아, 어린 양, 신화, 네로, 패러디, 상징적 심상

Key words: beast, Gematria, Lamb, myths, Nero, parody, symbolic imagery

들어가는 말

종말의 중요한 현상으로 짐승의 출현에 관심이 많았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 역사적 인물들을 지목하여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리키는 짐승일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러한 주장들도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장들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주장들 중 학자들의 수그러들지 않는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네로 황제’이다. 그들은 그가 바로 계 13:18에 나오는 666이란 숫자가 가리키는 첫째 짐승이며, 그의 하수인들은 둘째 짐승이라고 주장을 하나 여전히 불안한 제안일 뿐이다. 본 소고에서는 그런 여러 혼란들과 잘못된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짐승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기록당시의 여러 신화적이며 역사적인 배경을 기저로 하고, 특히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짐승의 어린 양에 대한 여러 흉내내기와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상징법을 통해 그 짐승의 정체와 그와 관련된 구절들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신화적 심상으로의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요한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보게 된다. 그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괴물이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며,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한다. 이 기괴한 짐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 짐승의 정체를 알기 위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기 전 이미 고대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있던 신화와 유대 묵시적 문헌들과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바벨론 창조신화인 엘루마 엘리쉬(Enuma Elish)에서는 마르둑(Marduk)과 티아맛(Tiamat)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싸움을 묘사한다. 마르둑은 질서의 세력을 대표하고, 티아맛은 혼돈의 바다를 의인화한 것이다.

그 바빌론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격인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이고 그녀의 몸으로 하늘을 만든다. 그러나 하이델(Heidel)은 바벨론 신화에서 티아맛을 용같은 괴물(dragon-like monster)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¹

한편, 하워드(Howard)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그러한 바벨론 신화보다는 가나안 신화가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소논문에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²

시리아에 속한 우기릿 고대지역에서 발견된 ‘라스 삼마 텍스트’(Ras Shamra texts)는 1700~1400 B.C. 기간의 가나안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 그 텍스트의 한 부분인 아나드(Anath)와 용(Sea-Dragon)의 싸움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용을 꼬아리를 튼 일곱 머리의 뱀(the winding serpent) 또는 일곱 머리를 가진 샬얏(Shalyat of the seven heads) 또는 지하세계의 용(the underworld dragon)같은 여러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다. 또 텍스트의 다른 곳(“Baal and Waters”)에서, 구약성경에서 “리워야단”이란 단어가 나온 바로 그 이름, 일곱 머리를 가진 로탄(Lotan)이 나온다... 구약 리워야단이란 괴물은 고대 근동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후에 나온 묵시들과 랍비들의 문학에서 그 신화적인 괴물에게 독특한 자리를 주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리워야단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짐승의 기저를 이룬다.

구약성경에서는 그 신화적 동물인 리워야단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구약성경에서 리워야단에 대한 아마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은 이사야 27:1일 것이다.³ 이사야는 그 구절에서 악의 군대를 뱀이나 용 혹은 리

¹ A. Heidel, *The Babylonian Gene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72-75.

² W. Howard, “Leviathan and the Beast in Revelation,” *Biblical Archaeologist* 11.3S(1948): 62-63.

³ 그 외에도 리워야단과 관련된 구약의 중요구절들은 욥 41 장; 3:8; 시 74:14; 104:26이다.

워야단으로 의인화시켜 표현하며, 야웨에 의해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들로 부터 구원받을 날에 대해 말하고 있다.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한편 몇 개의 구약성경단어들은 근본적으로 리워야단과 관련되어있다. 그 중 하나는 창 1:2에 ‘깊음’으로 표현된, 태고의 혼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테홈(tehom)인데, 구약에서 이 단어를 의인화시키지 않았지만, ‘바다’(yam)란 단어는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예를 들어 욥기 7:12 “내가 바다이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의 경우에서와 같이 물 자체 이상으로 아마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싸움에 대한 옛 신화를 떠오르게 하는 활동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욥기 41:31,32에서 그 ‘깊은 물’ 혹은 ‘바다’는 리워야단의 거처로 언급되어져있다. 욥 9:13; 26:12; 사 51:9; 시 89:10에 나오는 바다에 사는 바다괴물 라합(Rahab)이나 시 74:13에서 개역한글성경에서 용으로 번역된 탄닌(Tannin)같은 유사 바다 괴물도 그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⁵

한편 하워드(Howard)에 따르면, 칠십인경에서 ‘리워야단’은 일반적으로 용(drakon)이라고 번역되었고, 그리고 그가 산다는 심연 즉 테홈(tehom)은 아뷔소스(abyssos)로 번역되었으며, 신약성경시대에 그것은 ‘불과 연기가 가득한 무저갱’이 되었다(계 9:2)고 한다.⁶ 요한계시록에서

⁴ 이 구절에서 리워야단은 세상에서 악의 군대를 대표한다. 주의 날에 승리의 상징은 이러한 괴물 혹은 용의 파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저자는 옛날 신화적 사고에 의지하여, 야웨가 의로운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적들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교양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⁵ Heidel, *Babylonian Genesis*, 92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이스라엘의 강한 적국들에게 적용된 그림언어라고 주장한다.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인 용(12:3)의 형상을 취한 적그리스도-짐승(계 13:1)으로 번역된 테리온(therion)은 바로 그 아뷔소스인 무저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묵시적 짐승들에 대한 개념을 저자 요한이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욥기 40, 41장에 나오는 베헤못(Behemoth)과 리워야단(Leviathan)과 매우 닮았다. 저자 요한은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계 13:11-18)을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계 13:1-10)의 하수인으로⁷ 소개하며 그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바다를 거처로 삼는다는 ‘리워야단’과 다른 땅을 거처로 삼는다는 ‘베헤못’이란 두 신비한 생물을 이야기하는 유대 전통을 전승받고 있다고 보인다(에녹1서 60:7-9, 에스드라 2서 6:49-53, 바룩 2서 29:4).⁸ 이들 두 짐승은 유대 묵시문학들에서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으므로, 저자 요한은 마지막 날들의 도래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의 이미지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인다.

고대근동의 신화들이나 거기에 사용된 괴물들이 히브리 유일신 신앙의 근거가 되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짐승들의 심상을 이용하여 구약에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후에 생긴 기독교 초기의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리워야단과

⁶ Howard, “Leviathan and the Beast in Revelation,” 67.

⁷ 계 13:1에서 바다로부터 나오는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정확히 12:3의 큰 붉은 용과 유사하다. 두 묘사들은 단 7:2ff.에 그리고 리워야단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 고에 기초한 듯 보인다. 하지만 13:1의 짐승은 그 뿔에 열 면류관이 있는 반면에, 12:3의 용은 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으므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머리가 뿔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볼 때, 12장은 사단용을, 13장은 용의 형상을 가진 적그리스도 짐승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⁸ 램세이(Ramsay)는 바다에서 나온 첫 짐승은 아시아 지역에 매년 새로 부임하는 로마의 황제의 대리자인 식민지 총독이, 로마로부터 에게해를 통해 에베소에 도착할 때, 로마나 그 황제는 바다로부터 나오는 자로 그려질 수 있었고, 둘째 짐승은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토속 권력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관점에서는 자기 땅에서 올라온 자로 그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W. M. Ramsay,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London: Hodder & Stoughton, 1904), 103f.

베에뫏이란 심상을 계승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야웨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의 세력들에 대한 승리는 야웨의 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때까지 거듭 반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시기, 예를 들면, 출애굽 때(시 74:13-14, 사 51:9-10)나 출바벨론때(사 27:1)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술했기 위해서 창조신화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최후 승리의 날까지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계속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큰 바다로부터 나온 네 큰 짐승의 이상을 기술했 때 그러한 신학적 표현은 살아있었고(단 7:2-3), 그 후 1 세기의 저자 요한의 글에도 그 신화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짐승들과 같은 악한 세력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를 기대하는 한 그 신화적 표현들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저자 요한은 자신의 글을 통해 현실 속에서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지만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렇게 신화적 전통과 묵시적 문서들과 랍비전통을 걸쳐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던 악의 심볼로서 ‘리위야단’ 같은 짐승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2. 풍문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관련하여 신화적인 배경 외에도 당시 풍문이 그 배경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네로 귀환설(Nero redux)과 네로 환생설(Nero redivivus)이 그것들인데, 대개 주석가들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계 13:3,

cf. 13:12)라는 표현을 죽은 네로 황제에 대한 소문인 귀환설이나 환생설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그들 이야기는 이렇다.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했을 때 한 소문이 퍼졌다. 그가 죽지 않았고 그가 살아있을 때 친분 관계를 맺고 있던 파르티아(Parthia)로 도망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복수하려고 돌아올거란 소문이었다.⁹ 그러한 소문은 사실인 것처럼 가짜 네로가 서너 차례나 나타났던 사실이 보고되었다.¹⁰ 그들은 파르티아 왕의 호의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로마제국에 위협도 되었다.

이런 귀환설과 함께 다른 네로에 관한 이야기도 보도되었다. 즉 네로 환생설로 알려진 것들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유포되었는데, 홍창표는 “학자들은 네로 환생설들이 시빌린 신탁에서 처음으로 문학적인 모양을 획득했다”고 주장한다.¹¹ 그리고 거기에서 네로는 마지막 때에 악마화된 종말론적인 적대자로서, 즉 네로와 분명히 동일화한 인간의 모습인 벨리알(Beliar)로 도래하여 성도를 핍박하는 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시빌린 신탁 3:63-74).¹² 또 돌아온 네로가 끔찍한 뱀 사령관이 되어 돌아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언하며(시빌린 신탁 5:28-34),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한다(시빌린 신탁 5:214-2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항하

⁹ 수에토니우스(Suetonius)는 네로가 곧 돌아와서 그의 대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었다(Nero 57). 네로가 파르티아로 도피했다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시빌린신탁 4:119-122, 137-139; 5:137-54, 214-27; 8:68-72; 12:78-94에 반영되었다. cf. R. Bauckham, *Climax of Prophecy* (London · New York: T&T Clark, 2000), 413-14.

¹⁰ 주후 69년 Tacius, *Hist.* 2.8; 주후 80년경 Dio Cassius 66.19.3; 주후 88년경 Suetonius, *Nero* 57.2의 보고들에 그들이 나타났던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¹¹ 홍창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짐승과 네로 환생설과의 관련문제 설명” *신학정론* 19권 1호(2001): 121에서, 네로 황제의 환생설은 주후 71~74년 작품인 1세기 말경 유대교문헌 시빌린신탁 5:143~148에서 확립되었으며, 같은 책 p. 131에서 “네로 환생설이 명백하게 나타난 곳은 단 한곳으로 주후 2세기의 시빌린신탁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¹² 네로와 벨리알의 동일시는 그 외에도 유대 묵시문헌 이사야 승천기 4:1-14(특히 4:2)에도 나타난다. 한편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진 여러 유대 작품들 속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6:15에서 벨리알은 사단에 해당한다.

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자 한 명의 강력한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그는 지옥으로 던짐을 받는다(시빌린 신탁 4:14). 여기에 더하여 네로를 ‘큰 짐승’이라고 불렀던 시빌린 신탁 8:157 비롯하여, 네로가 짐승으로 환생한다는 다른 여러 환생설들도 학자들 사이에 네로 황제를 첫 짐승과 관련시키려는 근거가 되어왔다.¹³ 이런 풍문들은 네로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문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유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로 환생설을 저자 요한이 잘 알고 있었다면, 그의 창의적인 사고에 어느 모양으로든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¹⁴ 그리고 요한계시록 독자들도 계 13장에서 첫째 짐승이란 표현을 들을 때 네로 환생설을 떠올렸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네로환생설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사이의 평행은 (네로환생설의 내용이 실재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첫째 짐승이 네로 일거란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한 여러 주장들 중 설득력있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¹⁵ 첫째, 네로 환생설에서는 그가 돌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로마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으나, 계 13:4에서 짐승은 이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경배를 받고 있다. 둘째, 네로귀환설이나 환생설은 오히려 로마를 위협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가 회복됐다는 것은 오히려 짐승의 실체인 로마의 세력이 회복되고 힘이 강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환생설의 경우와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 재출현하는 것은 그의 세상 통치권을 확립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이 네로 귀환설이나 환생설과는 근본적으로 그 줄거리 진행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네로와 관련된 귀환설이나 환생설같은 당시의 풍문들은 결코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7장과 직접적인 평행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자 요한도 그러한 풍문들을 들었을 것이란 전제가 가능하다면,¹⁶ 그는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이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네로-벨리알이 주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적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그 짐승이란 심상을 이용하여 기독교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였을 법하다.

3. 시대적 상황과 짐승의 페러디

3.1 시대적 상황

우리는 앞에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의 저자나 독자가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가정되는 신화들과 풍문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과 함께 짐승의 정체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요한 당시의 실제 시대적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안에는 계시록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시대적 상황이 분명하게 투영되고 있고,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정부에 의해 강요되었던 로마황제숭배라는 상황 앞에서 위기에 봉착했던 성도들의 실존적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네로 환생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홍창표 “첫 짐승과 네로 환생전설” 113-140.를 참고하라

14 요한의 창의적인 생각이 네로 환생전설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407ff.을 참고하라. 그리고 홍창표는 “첫 짐승과 네로 환생전설” 126에서 저자 요한이 네로 환생설을 고려했다면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고 17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짐승이 어설픈게 흉내내고 있는 두 부분에서 재공식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5 홍창표, “첫 짐승과 네로 환생 전설,” 130-31, 138; P.J. Minear, “The Wounded Beast,” *JBL* 72(1953): 93-101; L. Morris, *Revelation*. TNTC(IVP Academic, 2009), 167.

16 홍창표는 “첫 짐승과 네로 환생전설” 130-31에서 네로 환생전설이 중동에 널리 퍼진 전설임이 틀림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cf. N. Kraybill, *Imperial Cult and Commerce in John's Apocalypse* (JSNT Sup [Book 13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66), 161.

이제 13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단으로부터 큰 권세를 얻은 두 짐승 즉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42달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 이러한 문맥에서 우선 계 13:1-10의 바다에서 나온(단 7:4-7에 언급되었던 네 짐승의 특징들을 종합한 모습의) 첫째 짐승은 요한 당시 상황 속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지닌 로마제국과 같은 세속 정권을 상징할 것이다.

그리고 계 13:11-18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13:11) 모습은 그가 어린 양과 같은 외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는 사단군대에 속하여있고, 서열상 상급자인 첫째 짐승을 통하여 사단적 권세를 부여받고, 사람들에게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며 그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차 없이 죽이는데 내어준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조직구조를 보면, 성도들이 로마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곧 그 배후에 있는 ‘음부’에서 나온 첫째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같고, 또 그 짐승을 숭배하는 것은 다시 (그 짐승에게 그 악마적 권세를 준) 용을 숭배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¹⁸

3.2 짐승의 페러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린 양이 그의 대행자(agent)가 되어 이 땅에서 실행하듯, 계 13장에서 용(사단)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짐승(적그리스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행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

령이 삼위일체적 관계로 그 본질을 같이 하시듯, 사단(용)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흉내내어, 적그리스도(첫째 짐승)와 거짓 선지자(둘째 짐승)와 함께 사단적 삼위일체 관계를 이루고, 그 두 짐승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실천한다.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어설프게 흉내낸 삼위일체적 구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전반적인 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12:7-9),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며(13:1),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13:11),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10:6)를 전면적으로 대적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한 모습과 아울러, 계 10:2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용도 그 하늘 천사의 모습을 흉내내듯 12:17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음”으로 바다와 육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곧 이어서 계 13장에서 첫째 짐승은 그의 대행자로 바다에서 나오고, 그리고 둘째 짐승은 그의 하수인으로 땅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계 13:1-10에 나오는 첫째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계 12:3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에 나오는 용과는 다르다. 계 13:1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에 나오는 첫째 짐승과 비교해보면, 먼저 용과 첫째 짐승은 사단적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겉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용은 머리가 먼저 소개되고, 짐승은 뿔이 먼저 소개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용은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고, 짐승은 뿔에 열 면류관이 있다는 점들 때문에 그들은 분명 다른 존재들로 인식된다. 그 말은 용의 경우는 머리를, 짐승의 경우는 그 머리에 난 뿔을 강조함으로써 용이 짐승보다 더

17 G.B. Cair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evine* (BNTC; London: A.&C. Black, 1966), 171.에서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은 가능한 한 어디에서건 기존의 정치 기구들을 활용하여 다스리려 하였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황제숭배는 지방행정체제 안에 라틴어로 ‘코뮌(commune)’이라고 알려진 자치단체의 관할아래 두었다고 설명한다. 요한이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모든 사안에서 첫째 짐승(로마황제가 준 권위로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보였을 것이다.

18 칠십인역(LXX)에서 히브리어 사단을 악마(διάβολος)라고 번역하고 있다.

핵심적이고 뿌리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은 머리로서 모든 악한 뜻과 계획을 세우고, 첫째 짐승은 용의 지상의 대행자로서 그 머리에 있는 뿔로서 그 머리된 용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계 13:1에 그 첫째 짐승 머리에 참람된 이름들이 있음으로 그 머리에 달린 뿔은 그 참람된 이름을 위한 힘과 세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 사이에는 차례대로 사단-용,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 거짓선지자-둘째 짐승이란 서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3장 안에는 그러한 조직구조를 가지는 사단과 두 짐승은 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을 어설뜨게 흉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비교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계 5:6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참죽음)을 흉내내어 계 13:3에서 첫째 짐승도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이 보이게 한다(유사죽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능력(5:12-13)과 보좌(3:21)와 권세(12:10)를 주신 것을 흉내내어 계 13:2에서 용도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부여한다. 하나님(4:8-11)과 어린 양(5:13-14)에게 우주적인 경배를 드리는 것을 흉내내어 계 13:4에서 용과 짐승도 사람들로 자신들을 경배하게 한다. 계 20:15에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는 것을 흉내내어 계 13:15에서 사단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뿔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계 7:2-8에서 천사들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흉내내어 계 13:16에서 짐승도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계시록 안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흉내내기 외에도 수많은 암유된 흉내

내기로 가득하다. 저자 요한은 왜 이렇게 많은 페러디를 사용할까?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당시 독자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로마제국, 그들의 무적의 힘과 능력, 그리고 로마황제가 주었다고 생각한 평화와 안정 등은 그전에는 누려보지 못한 것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성취와 비견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 그것들은 모두 거짓 평화와 안정이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과 믿음을 해치는 존재들임을, 즉 첫째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 혹은 로마 황제는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용의 지상에서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하수인으로서 용과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뿔이든 다 죽이게 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페러디시킨 비교를 통해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²⁰

4. 게마트리아적 접근과 상징적 접근

4.1 게마트리아적 접근

4.1.1 육백육십육(666)

이제 짐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아마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계 13:18의 미스터리의 숫자 666에 대해 살펴보자.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이름들이 666에 대한 참 해석으로 제시되어왔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모두를 설득할 만한 방법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의 숫자로 남아있다.

13장 17, 18절에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고 했으니, 짐승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666이란 수가 가리키는 사람을 찾아내면 될 것이다. 당시 헬라인은 모든 자모음을

¹⁹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외에도 악의 세력이 선의 군대를 흉내 낸 수많은 페러디가 발견된다. 장영, *요한계시록강해* (서울: 개신대학원대학교, 2008), 217-219; Vern S. Poythress, *요한계시록 백잡기*, 유상섭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2), 9-22, 152-155; 박두환, "사단의 파워구조 요한계시록 12-13장에 나오는 용과 두 짐승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5 (1999, 10): 145-170.를 참고하라.

²⁰ 윌터 윈크, *사단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156ff.; 박두환, "사단의 파워구조" 169.을 참고하라.

숫자로 사용하였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의 각 자음을 숫자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알파벳의 이중 기능은 독자들에게 ‘어떤 이름을 수’ 로 또는 ‘어떤 수를 이름’ 으로 바꿀 수 있게 하였다.²¹ 그러나 문제는 현대 독자들의 경우에 ‘어떤 이름을 수’ 로 바꾸기는 쉽지만, 그 반대로 ‘어떤 수를 이름’ 으로 바꾸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이름을 숫자로 바꾸었다고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합해진) 수를 보고 그 수를 풀어내어 알파벳으로 전환시켜 그 이름을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어떤 (합해진) 수는 여러 경우의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합해진) 수를 분해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름 또한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네로 황제의 모친살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일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는 악마로 여겨질 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68년에 자살했으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13:10),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짐승의 특징과 가장 유사한 황제는 네로(Nero)일 것이라는 분명한 가설로부터 출발하여, 요한계시록 13:18절에 나오는 ‘육백육십육’ 라는 숫자를 풀어내어 그 상징수는 네로를 가리킨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리 쉽지 않는 문제다. 네로 황제의 헬라이어 이름인 Neron(Νερων)인데, 그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값을 대입해($\nu=50, \epsilon=5, \rho=100, \omega=800, \nu=50$) 그들을 더해보면 1,005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조건을 만들어 시도해서, 즉 그 헬라이어 이름에 황제 칭호를 붙여 Neron Kaiser라 하고, 그 이름을 다시 자음에만 숫자 값이 있는 히브리어로 음역해 그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값, 즉 $\text{nun}(\aleph)=50, \text{resh}(\beth)=200, \text{waw}(\varepsilon)=6, \text{nun}(\aleph)=50, \text{qoph}(\zeta)=100, \text{samech}(\delta)=60, \text{resh}(\beth)=200$ 을 대입한 후 그 숫자들을 합해 666이란 수가 나왔다고 하였

²¹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 라고 하였다. 이러한 게마트리아적인 해법 이외에도 666에 대한 수많은 해석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대개가 대답할 수 없는 약점들 때문에 보편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²²

그리고 또한 계 13:8절에서 그 수는 ‘짐승의 수’ 와 같다고 했으니, 같은 방법으로 짐승이란 헬라이어 데리온(θηρίων)에 대해서도, 그 단어에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text{tau}(\aleph) = 400, \text{resh}(\beth) = 200, \text{yot}(\iota) = 10, \text{waw}(\varepsilon) = 6, \text{nun}(\aleph) = 50$ 이 되고, 그것들을 합산하면 66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로써 짐승의 수도 666이고, ‘네로황제’란 이름의 수도 666이 되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킬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한 게마트리아적 추정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는 그 도출 방식의 인위성 때문이다. 게마트리아적 풀이방식은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를 의미했을 것이라는 강한 전제로부터 출발해, 헬라이어 이름 자체로는 666이란 수가 안 나오니, 가이사라는 호칭을 넣어 그것을 다시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666을 만들어 내고 있어 그 도출과정이 너무 인위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네로 황제 때의 시대정황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문맥에서 말하는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계 13:14-17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황제숭배를 강행했다던가, 표를 가지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²³

²² 또한 이와 같이 네로의 라틴어 이름(Neron)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이어 이름(Nero)에 황제칭호를 붙인 Nero Caesar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text{nun}(\aleph)=50$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어 음역의 숫자 값은 616이 되는 데, 바로 이것은 그 짐승의 수가 616이라는 서방 전통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풀이는 서방 전통인 616을 지지해 주게 된다.

²³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쳐 보호하시듯, 사단도 자기 백성들에게 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함으로 자기 소유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졸렬한 모조품인 짐승의 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 표현이라 여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계 13:16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부위인 오른 손이나 이마에 대해서 많은 제인들이 있어왔으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는 행위는, 계 9:20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우상에게 절하고...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는 구절을 참고할 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머리로, 악행은 손으로 하는 사단적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자 요한은 오른 손이나 이마에 사단의 표를 받게 한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2 일곱 왕과 여덟째 왕

좀 더 많은 짐승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요한계시록 13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17장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저자 요한은 13장에서 충분히 짐승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보류해 두었던 그 짐승의 정체를 17장에서 더욱 자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7장의 짐승이 13장의 짐승과 동일하다는 것은, 먼저는 짐승의 동일한 모습이나 출처 그리고 그의 활동에서도 감지가 되지만, 무엇보다 계 13:18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있는 자는...”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계 17:9-10도 역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계 14장과 16장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들 때문에 끊겨져있던 정보를) 이러한 동일한 도입구절을 통하여, 13장과 17장의 정보들을 내적으로 다시 연결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이 13장의 짐승과 동일한 짐승임을 지시한 후에, 계 17:9에서 그 짐승의 일곱 머리에 대해 해설하기를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한다. 그 일곱 산은 대번 로마시를 가리키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그것은 로마시가 큰 언덕같은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일곱 산의 도시’ (urbs septicolis)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²⁴ 그 도시는 로마제국의 중심으로서 로마제국을 대표하고, 다시 그 로마황제는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은 로마제국이나 (집합적 개념으로) 로마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 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에서 그것을 다시 ‘일곱 왕’ 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²⁵

다 cf. 출 13:9, 16.

²⁴ 카드(Caird)는 *Commentary on Revelation*, 216.에서 12월에 로마의 성벽 안에 일곱 개의 산이 둘러져 있음을 기념하는 ‘셉티몬티움’ (Septimontium) 축제가 있었고, 라틴 문학은 이 잘 알려진 로마 지형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들로 기록하였다고 한다.

²⁵ 임잔수, “짐승의 숫자 666: 요한계시록 12-13장의 비평적 연구,” *신학과 세계* 44호

그럼 17:10에서 말하는 ‘지금 있는 여섯 번째 황제’ 는 누구일까? 그리고 또 계 17:11에서 그 일곱 황제 중 다시 나타나게 될 여덟째 황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를 찾는 것은 첫 눈에 금방 풀어질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려고 달려드는 순간 혼돈 속에 빠지고 만다.

아우구스투스(Augustus, 31 B.C.-14 A.D.), 티베리우스(Tiberius, 14-37 A.D.), 가이우스(칼리굴라) (Gaius [Caligula], 37-41 A.D.), 클라우디우스(Claudius, 41-54 A.D.), 네로(Nero, 54-68 A.D.), 갈바(Galba, 68-69 A.D.), 오토(Otho, 69 A.D.), 비텔리우스(Vitellius, 69 A.D.), 베스파시안(Vespasian, 69-79 A.D.), 티투스(Titus, 79-81 A.D.), 도미티안(Domitian, 81-96 A.D.)

즉 “지금 있는” 시기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로 본다면 전통적 견해에 따라 도미티안 때로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그가 현재 통치하고 있는 여섯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는지? 아무리 계산을 하여보아도 이런 문제들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한 8번째 황제로 그럴듯한 후보자는 누구일까? 이런 문제들은 역사상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황제들만을 고려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²⁶

한편, 그 짐승에 대해서 계 17:8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로 묘사한다. 이 묵시적 구절은 짐승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할 우주적 심판의 때를 강력히 시사한다. 그렇다면 여덟째 왕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저작 당시가 아닌 어린 양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존재로 보아야 하니 요한계시

교신학대학교 2005. 6): 110.에서 그는 “당시 동양에서 ‘왕’ 은 황제를 말하는 통용어였다(참고 딛전 2:2). 그러므로 이 칭호는 로마의 생활방식으로 보면 황제들에 대한 언급이다.” 고 진술하고 있다.

²⁶ *Ibid.* 112.

록 저술당시의 로마황제들의 명단에 적용하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산술적 계산 방식으로 짐승의 수 666의 비밀을 푸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4.2 상징적 접근

이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로를 첫째 짐승이라고 전제한 많은 학자들의 노력은 결국 짜맞추기식 결론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666이란 숫자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3,4,6,7,10,12 등 대부분의 숫자들의 경우처럼 산술적 수가 아닌 상징수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의 문제들은 역사적인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 요한의 1세기 독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종류의 해결법을 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상징은 특정한 어느 한 사람, 한 사물, 한 사건만을 지목해 하는 암호가 아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일대일의 관계, 즉 한 가지 신호가 한 가지 뜻만을 가질 수 있는 SOS 조난신호같은 암호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한(perfect) 또는 전체(as a whole)란 뜻을 의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숫자였다. 예를 들면, 아무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단지 일곱 개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에만 편지를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곱(7)이란 수는 일련의 모든 황제들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로 보인다. 그래서 그 실제 명단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황제들의 수는 일곱(7)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이면적 의미)를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즉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묵시적 상징으로 설득하고 있는’ 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숫자 역시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의미를 나르는 상징수로 보아야 한다.²⁷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6이란 상징수는 결코 완전수 7에는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수로, 당시에 늘 인간의 수로나 사단적 수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666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정한 로마황제를 가리키는 암호수라기보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단적 성격의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강력한 인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666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왕이라 또는 자기들의 주라고 선언했던 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안정과 평화와 생명을 주는 왕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짓 평화와 안정을 주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진실은 “자기 백성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계 17:16)는 것이 짐승의 전형인 로마황제들같은 이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다. 그에 반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다(cf. 요 6:53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묘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저자 요한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는 안된다고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666이란 수가 아래와 같은 시빌린 신탁에서 ‘예수’의 이름의 수가 888 (I=10, H=8, Σ=200, O=70, U=400, Σ=200)이므로 666은 이를 흉내 낸 수라고 주장하기도 있다.²⁹

네 개의 모음과 두 개의 자음을 가지고 땅위의 인간들처럼 죽을 몸을

²⁷ 장영,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창의적 상징” *개신논집* 8 집(2008): 97-123.을 참고하라.

²⁸ 임진수, “짐승의 숫자 666,” 103-04.에서 “이 상징적 의미를 적용한 사람은 이레니우스이다. 그는 그의 이단 반박문(*adv. haer.* 5.28.2)에서 666의 600과 66과 6이 완전수 7이라는 숫자와 비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이런 타락은 태초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해의 배경에서 6이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못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²⁹ Jean-Pierre Prevost, *How to Read the Apocalypse* (SCM Press, 1993), 40.에서 재인용

입고 성육신하신 진실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나는 분명하게 당신들을 위해 그 완전한 숫자를 말할 것이다. 일의 자리 수가 팔, 여기에 십의 자리 수가 여덟, 그리고 여덟 개의 백이 진실로 진실한 사람들에게 그 이(ἑβδομήκοντα = 888)을 계시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으로 지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이다. (시빌린 신탁 1: 324-31)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시빌린 신탁이 요한계시록보다는 좀 더 늦은 연대의 글이기 때문에 요한이 666이란 수를 만들 때의 준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666은 히브리어로 음역한 이름을 가지고 계산했지만, 888은 예수의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수로 환산한 것이므로 서로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6은 불완전수, 7은 완전수로 여겼던 당시의 개념을 존중한다면, 666이란 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의 사단적 성격을 강조한 상징수로 사단적 성격의 나라 또는 그 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인다. 이 부분에서 홍창표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짐승이라는 요한의 상징은 독특하게 불신의 정치세력과 제도를 함축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러한 네로같은 짐승의 전형들의 발흥과 소멸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대에 미치는 것처럼 사단과 사단의 대항자인 짐승들의 악의 활동 또한 온 세대에 미치는 것이다”고 하며,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된 것은 네로 황제가 아니고 로마황제와 같은 악의 세력이 역사상 반복하여 일어나고 또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바르게 결론짓는다.³⁰

³⁰ 홍창표, “첫 짐승과 네로 환생전설” 130, 32, 34; 유은걸도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481.에서 “네로와 그의 현신은 일종의 ‘집단 인격’으로서 로마 황제라는 존재를 표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계시록에서 로마를 바벨론이라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바벨론(계 14:8; 16:19; 17:5; 18:2,10,14,15,21)이란 표현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현재의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지닌 로마제국에만 한정하지 않고

5. 짐승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한계시록은 전우주적이면서 전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역사 이야기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구약시대 이야기가 들어있고, 구약의 성취인 예수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 사건과 죽고 부활하신 역사와,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는, 그리고 종말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묵시적 상징들로 가득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제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러한 구속사적 페턴을 따라 사단(용)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의 대항자인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첫째 짐승)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그의 하수인인 땅에서 올라온 거짓선지자(둘째 짐승)도 자신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필자는 앞부분에서 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의 명백한 페리디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나 계 17장에는 좀 더 은밀하고 암시적인 짐승의 페리디도 발견된다. 특히 짐승이 예수의 부활승천은 물론 그분의 재림을 짐승이 흉내내고 있다고 볼 때 더욱 그렇다.

주님이 오셨을 때, 구약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좀 거시적 시각으로 본다면) 로마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주님의 공생애와 그 절정인 십자가 사건은 당시에 일어났던 현재적 사건으로 표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승천하신 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의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속히 오실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온 시대에 적용되는 구속사적 페턴을 기초로 계 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는 표현에 적용해보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온 시대와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더 맞아 보인다.

먼저 ‘하나는 있고’는 현재시제적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를 죽이고 성도들을 박해했던(적그리스도의 모형 혹은 전형으로 제시된) 로마제국이나 로마황제들을 의미할 수 있다면, ‘다섯은 망하였고’는 과거시제적 표현으로 이전에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과거 모든 악한 나라들과 황제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섯(과거의 세력)과 하나(현재의 세력)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여섯(6) 왕으로 악의 세력을 의미하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동안 머무리라’는 표현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전형들의 통치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계 22:7, 12, 20) ‘잠시 동안’ 지속될 뿐이다.³¹

이와 같은 사실은 계 17:11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에서도 확인된다. 이 구절 또한 비밀스러운데, “지금 없어진 짐승”이, 어떻게 일곱 중에 속할 수 있으면서도 “여덟째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표현 또한 앞에서 언급한 짐승이 어린 양의 구속사적 패턴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신 분’ 이시다.³² 그래서 짐승도 꼭 그렇게 ‘지금 없어졌다.’고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게 될) 종말론적 교회 시대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

고 계신다(요 14:16, 26; 15:26; 16:13-15; 행 2:33). 그에 대해(일곱째) 짐승도 그것을 흉내내어 사단적 악령을 통해 여전히 세상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계 16:13).³³ 그리고 종말에 ‘여덟 번째’ 짐승-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세상 왕권을 되찾기 위해 주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자신도 무저갱에서 올라와(계 17:8), 하늘에서 내려오신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에게 총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므로 그의 군대와 함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를 멸망시켜 불과 유향의 뜻으로 던질 것이다(계 17:14; 계 19:20; 계 20:10). 이렇게 황제 혹은 왕은 권력투쟁을 통해 결정된다.

요한은 이렇게 흉내내기에 능한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의 대행자인 짐승(적그리스도)과 어린 양(그리스도)을 묘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 이면에서 벌어지는 전 우주적인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의 진행과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 저자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며, 어린양이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 도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자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항하여 싸우는 상대세력으로 고

³¹ 그레고리 K. 빌 · 데이비드 H. 캠벨, *요한계시록 주석*, 김귀탁 역(복있는 사람, 2015), 581-583.

³² 계 1:8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에서 “이제도 있고”를 문두에 두어 주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령님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³³ 홍창표, “첫 짐승과 네로 환생전설” 127.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13:1~10에서 짐승이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흉내내어 마흔 두 달 동안 즉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동안의 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요한이 종말의 끝의 짐승활동을 설명한 것이다.”고 한다.

대근동 신화나 구약묵시문헌 혹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용이나 짐승이란 심상을 이용하였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신약시대가 도래하자, 구약시대의 아웨와 혼돈의 세력들 사이의 태고적 전쟁은 새로 시작된 교회란 콘텍스트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당시 로마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제숭배로 인한 박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은 다시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그 계시와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런 용이나 짐승의 심상을 사용하였으리라 보여진다.

2.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계 13: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게마트리야’ 방식을 적용하곤 했으나, 그러한 방법은 너무 전제적이며, 또한 억지스런 도출 방식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저자 요한은 1차적으로 분명 계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은 로마제국이나 로마황제를, 그리고 둘째 짐승은 로마황제를 숭배하도록 거짓 선전이나 예언을 하고 있던 토속세력들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전 구원역사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짐승을 네로황제나 다른 로마황제들로만 고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자적의미의 로마황제들은 종말에 나타나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황제들은 단지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며, 그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늘 그 발흥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그 짐승에 대한 정체와 속성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계 17장을 참고하였을 때, 그 짐승은 참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의 구속사적 페틴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적으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후 그리고 그리스

도의 재림의 날까지의 일들에 관한 선과 악사이의 싸움을 묵시적으로 용과 짐승들이란 이스라엘 전통적인 심상을 사용해 매우 강렬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는 거기에다 짐승이 어린 양의 구속페틴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혹은 은밀한 페러디 기법을 사용하여, 재림하실 어린 양보다 훨씬 열등하고 거짓된 짐승의 정체와 속성을 폭로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독자들은 대적들에게 속지 말고 그 세상에서 속히 나오도록 촉구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 도서]

- Bauckham, R. *Climax of Prophecy*, London, New York: T&T Clark, 2000.
- Caird, G.B.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evine*. BNTC. London: A.&C. Black, 1966.
- Heidel, A. *The Babylonian Genesis: The Story of Cre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Howard, W. "Leviathan and the Beast in Revelation," *Biblical Archaeologist* 11.3 S(1948), 61-68.
- Jean-Pierre Prevost, *How to Read the Apocalypse*. London: SCM Press, 1993.
- Kraybill, N. *Imperial Cult and Commerce in John's Apocalypse*, JSNT Sup.(Book 13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Minear, P.J. "The Wounded Beast," *JBL* 72(1953): 93-101.
- Morris, L. *Revelation*, TNTC. IVP Academic, 2009.
- Ramsay, W.M.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London: Hodder & Stoughton, 1904.
- Poythress, V.S.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2.
- 그레고리 K. 빌 데이비드 H. 캠벨 *요한계시록 주석*. 김귀탁 역. 복있는 사람 2015.
- 데이비드 E. 아우네 편. *요한계시록 6-16*. WBC 52중. 김철역. 서울: 솔로몬, 2005.
- 박두환. "사단의 파워구조 요한계시록 12-13장에 나오는 용과 두 짐승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5(1999, 10): 145-170.
- 월터 윙크. *사단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 한성수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 유은결.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제15권 제2호(2008 여름): 469-503.
- 임진수. "짐승의 숫자 666: 요한계시록 12-13장의 비평적 연구." *신학과 세계* (감리교신학대학교, 2005. 6): 87-115.
- 장 영. *요한계시록강해*. 서울: 개신대학원대학교, 2008.
- _____.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창의적 상징." *개신논집* 8집(2008): 97-123.
- 홍창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짐승과 네로 환생전설과의 관련문제 설명" *신학정론* 19권 1호(2001): 113-140.